

공감

2022. 06.13-19

658 호

gonggam.korea.kr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 받는 나라로”



특집 국정목표 ④ 자유훈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_10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_08 청년의 꿈 실현하는 희망의 다리 놓는다_36

“윤봉길 의사 정신은 지금도 국민에 용기와 위로”_48 코리아둘레길을 찾아서 ⑫ 호국의 달에 떠나는 역사 기행지_52

여름철,
꼭 지켜주세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0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0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03



물은
끓여 마시기

0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0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0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07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기

어떤 하루



● 우희덕 코미디 소설가

장편소설 <러블로그>로 제14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벗어나 본 적 없는 도시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제주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다.

슬며시 커튼을 젖히자 투명한 빛이 창 안으로 스며든다. 빛이 공간을 채우면 온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깃든다. 마음이 열린다. 맑고 포근한 날의 제주와 비가 오고 흐린 날의 제주는 서로 다른 곳이다. 다른 장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두말 할 것 없이 전자다. 그것은 컬러 사진과 흑백 사진, 푸른 바다와 검은 바다, 제주 해물라면과 그냥 라면 이상의 차이다. 제주에서 일주일 내내 흐리거나 비오는 날씨를 경험하면, 그런 환경에 혼자 있다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다만 삶을 노래하기보다 비판하기 쉽다. 줄곧 흐리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맑은 날은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런 날은 특별하다. 실상 어제와 똑같은 하루일 뿐인데 특별한 하루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날.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다. 일단 어디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날이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하는 곳이 제주라면, 내 앞에 펼쳐지는 곳이 모두 제주라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계획 없이 나왔다고 해서 후회할 일은 없다. 조금 헤맬 뿐이다. 일단 떠나는 게 더 중요하다. 힘든 여행은 있어도 후회하는 여행은 없다. 미션을 수행하듯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할 이유도 없다. 여행은 경쟁이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천천히, 꾸준히 쌓아가는 여

행의 마일리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멀리 떠나거나 관광지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관광지가 아니어도 여행할 곳은 많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 된다. 어느새 나는 한경면 고산리 마을을 걷는다. 단층 위주의 아기자기한 집들과 상점, 식당이 정겹다. 번잡하지 않고 평화롭다. 학교 앞 떡볶이를 재현했다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사인볼(회전간판)이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다. 별 좋은 날 포구에 줄줄이 늘어놓은 오징어도 몇 마리 산다.

그저 지나가는 길이라고 여기며 지나쳤을 때는 느끼지 못했다. 이곳이 이런 곳이었는지, 이런 풍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특히 자구내입구 사거리에서 자구내포구로 이어지는 노을해안로, 환상적인 꽃길을 자랑하는 녹산로나 중산간 지역을 시원하게 관통하는 산록남로보다 나은 건 그 이름뿐일지도 모른다. 수월봉 지질트레일이나 당산봉, 차귀도를 가기 위한 관문 정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을해안로 주변에 펼쳐지는 탁 트인 평야는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개방감을 선사한다. 끝없이 밭이 넓어 더없이 하늘이 높다. 맑은 날 빛을 받는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질료들이 특별한 풍경을 만든다. 그 풍경이 아무것도 아닌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 여행이 아무것도 아닌 하루를 특별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 어떤 하루를 건넨다.◎



제주 고산리 노을
해안로에서 바라
본 풍경 | 우희덕

공감 포토





‘영화’가 돌아왔다

“영화관이라는 곳이, 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박찬욱 감독의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소감 일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팝콘 등 먹거리를 들고 극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마동석·손석구 주연 범죄액션 영화 <범죄도시 2>가 개봉 20 일째인 6월 6일 관객수 9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천만 영화’ 탄생이 기대된다. 사진은 6월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 문화체육관광부

우희덕의 제주 표류기

01 어떤 하루

공감 포토

02 '영화'가 돌아왔다

국정종합

06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

코로나19

08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검사 의무는 유지



06

청년이 미래다

36 청년의 꿈 실현하는 희망의 다리 놓는다

내 삶을 바꾸는 정책

40 이주의 정책뉴스

국민과 함께 용산시대 ④

용산공원 시범 개방

42 120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 국민 품으로

호국보훈의 달

44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21세기형 의병입니다"

48 "윤봉길 의사 정신은 지금도 국민에 용기와 위로"

연재_코리아둘레길을 찾아서 ⑫

인천 강화도 '강화나들길 2코스 호국돈대길'

52 호국의 달에 떠나는 역사 기행지



표 지 이 야 기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 받는 나라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 집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12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18 /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 모아
미래산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2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26 / 온오프라인 경계 허무는 메타버스로 공간의 제약 없앤다
- 28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31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33 / 정보그림 뉴스
- 34 / "학생들 기회 넓히는 정시비중 확대 찬성"
"사회 초년생 전세자금대출 한도 올려야"

연재_ 공감 경제 ㉔

- 56 식량 외교

연재_K-컬처 ㉑

- 58 별이 된 송해, 참 애쓰셨습니다

연재_ 공감 우리말 ㉓

- 60 육월일까, 유월일까?

연재_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작가 ㉕

화가 박종갑

- 62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에서 미래를 찾다

- 64 참여공감

36



48



발행일 2022. 06.1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박보균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

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웅들 용기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더 근본적이고

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장·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황현준 경사·차주일 경사 등 순국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이어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오찬

윤 대통령은 6월 9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으로 이름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묵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 및 유가족들



천안함 생존장병 허순행 원사, 류지욱 중사가 6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또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경제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지역 따로 없다”

윤 대통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뒤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

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시·도지사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고도성장이나 비약적 성장이나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110건의 법률이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

이찬영 기자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검사 의무는 유지

정부 대책 종합

6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 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정신건강 치유 서비스 개편·확대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

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 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두창 등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코로나19 환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 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 원씩 선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포상
성격(인센티브) 관광 여행업계의 재도약과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상품 공모전’을 연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지급은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 곳 중 95%에 달하는 52만 곳에 2조 3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상 관광 상품 공모전... 여행사 최대 20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포상 성격(인센티브) 관광 여행업체의 재도약과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상품 공모전'을 연다고 6월 7일 밝혔다.

인센티브 관광 해외 기업이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고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 목적의 관광이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재개에 대비해 2021년부터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로서 외국인 기업 회의, 포상 성격(인센티브) 방한 단체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여행사다. 공모 신청서는 6월 21일까지 공식 누리집(ktoincentivetour.co.kr)에서 접수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 포상 성격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 최대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포상금 각 1000만 원과 외국인 모니터링단을 통해 관광 상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전 답사 여행을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 선정 절차와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문체부(www.mcst.go.kr)와 관광공사(kto.visitkorea.or.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심은하 기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네 번째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 또 기후·환경 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우선 국가 연구개발(R&D) 100조 원 시대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새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과학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과제들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신혼·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 호를 공급하고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네 번째 국정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4개)과 국정과제(19개)를 살펴본다.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규제 타파' 등을 외치며 권투 장갑을 끼고 율령치기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정목표에 소개하는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국정 과제 (19개)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
-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기후위기에 강한 물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17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⑭

윤석열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네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열네 번째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 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해 과학기술 주요 5개국(G5)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및 디지털 플랫폼 등의 신사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우주강국 시대를 앞당긴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을 실현한다.◎

김민주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26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해 발사대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 역할 강화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 안보·행복 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해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질적 성장 R&D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기술·환경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유연하게 예비타당성을 추진하고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한다. 또한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한다.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연구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 연구를 활성화한다.

기대효과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강한 안보·국민행복에 기여한다.

국정과제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 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세대(5G)·6세대(6G) 이동통신,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로봇, 사이버보안 등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며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초격차 R&D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특히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아울러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해 산학연과 협동·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이동통신,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퓨터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략적 국제협력

미국·유럽연합(EU) 등 선도국과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해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양자 분야는 미국·EU 등 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감염병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설드(APIS)를 신설한다.

기대효과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국정과제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양성·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 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학기술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를 확대·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를 부여한다.



기대효과

기초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HCR, 세계 상위 1% 연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전략기술 분야 주요 5개국(G5) 수준의 핵심 연구인력을 확보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직원으로부터 국정운영 홀런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적힌 야구 방망이를 선물받은 뒤 휘두르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9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부설 나노융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단

국정과제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인공지능(AI) R&D를 추진하고 2022년부터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의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 2022년부터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 융합을 확산한다.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인공지능(AI) R&D를 추진하고

2022년부터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의

육성을 추진한다.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2022년부터 국가 데이터정책 지휘본부(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해 데이터 혁신강국으로 도약한다.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2년부터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한계들과 신기술 확보

2022년부터 국가 전략자산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선택·집중한 핵심전략분야의 대규모 R&D를 추진해 기술혁명을 선도한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2022년부터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한다.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및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한다.

기대효과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로 성장하고, 데이터시장도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5위권내로 도약한다. 또한 2020년 최고 디지털 기술국 대비 88.6%인 디지털 기술력 수준을 2027년 93% 이상으로 높인다.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서 한 어린이가 가상현실(VR)방식으로 자율주행차량 체험을 하고 있다. | 한겨레

국정과제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5G·6G 선도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도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개막한다. 또한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자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10만 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2023년까지 촉진하고 2023년부터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

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2022년부터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하고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2023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과 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2023년부터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운영하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와이파이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하고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보안산업 매출액은 2021년 12조 6000억 원에서 2027년 20조 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국정과제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한다.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을 설계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한다. 특히 달 탐사선 발사, 달착륙선 개발 계획 등에 참여한다.

기대효과

누리호 발사(2022년 6월) 성공과 달 탐사선 발사(2022년 8월)를 통해 적극적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현재 이와 같은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이다.

국정과제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원천혁신역량 확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를 제고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을 결집한다.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촉진한다.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색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을 제고한다.

기대효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을 실현한다.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 모아 미래산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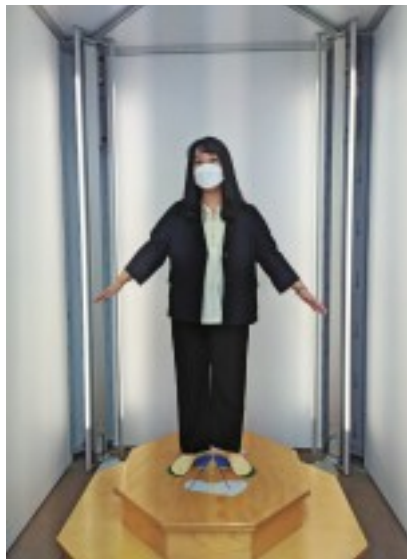
‘휴먼 빅데이터’ 지원 **사이즈코리아센터** 가보니

무거운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건설 현장
은 작업자의 부상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
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
면 재해 부위의 60% 이상이 물건 운반에
의한 허리 질환이다. 그 대안으로 무거운
자재를 쉽게 들고 운반할 수 있는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원으로 작동하는 능동형(액티
브) 로봇은 중량이 무겁고 입고 벗기 까다
로워 현장에서 꺼린다. 동작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짧은 것도 문제다. 웨어러블 로봇
기업 헥사휴먼케어는 최근 전기를 사용하
지 않는 수동형(패시브) 허리 근력 지원 로
봇인 ‘헥토르(L20P)’를 개발했다. 자체 중
량 2.4kg으로 가벼우면서도 작업 조끼처
럼 입고 벗기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사이
즈코리아센터’에서 헥토르를 직접 입어봤
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 10여 초
만에 착용할 수 있었다. 몸에 맞게 어깨
와 가슴 끈만 조절하면 되는 구조여서 속
달되면 혼자서도 착용하기 쉬워 보였다.
헥토르를 착용한 상태에서 20kg짜리 공
구를 들자 무게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뒤에서 잡고 같이 올려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이즈코리아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년 이상 축적한
한국인 인체치수 대량자료(빅데이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김선영 사이즈코리아센터장이 3차원(3D) 전신 스캐너
안에서 기본 자세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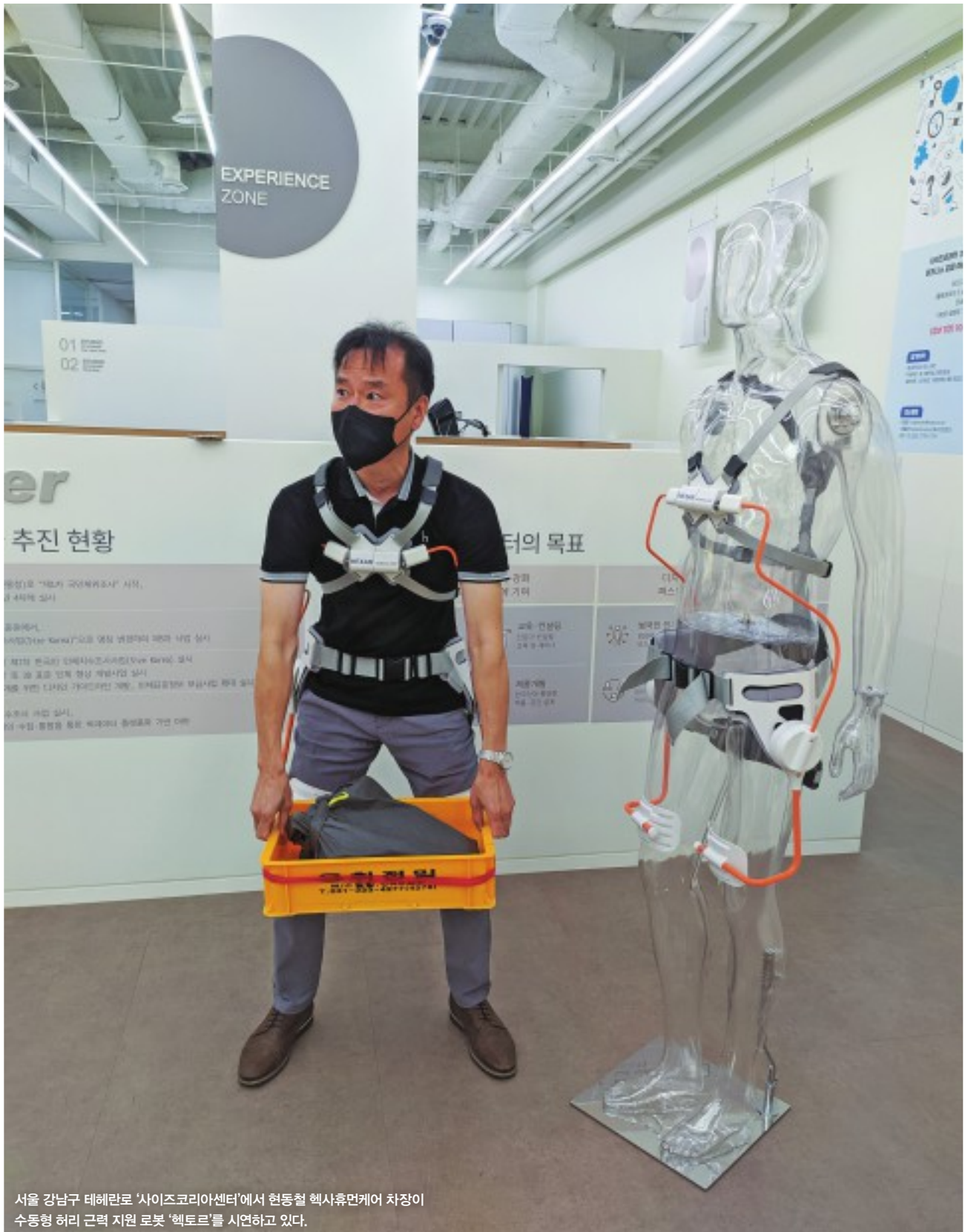
현동철 헥사휴먼케어 차장은 “허리
좌·우측 구동부 안에 스프링과 탄성체
가 들어가 있다. 몸을 숙일 때 감긴 스프
링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풀리면서 가슴
팍을 밀어주는 원리”라며 “서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2~3kg 정도 허리를 지지하
고 실제 물건을 들었을 때 16kg까지 허리
를 지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체형에 웨어러블 로봇 최적화

헥사휴먼케어는 헥토르를 개발하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고가의 착용
형 로봇과 달리 여섯 가지 치수로 대량생
산을 해 한 대당 120만~160만 원이라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었다. 대
신 치수가 키와 가슴·허벅지 둘레 등에
맞아 작업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헥
토르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현동철 차장은 “헥토르의 가슴과 허벅
지 프레임(틀)이 몸에 너무 붙으면 움직일
때 간섭이 일어나고 너무 떨어지면 손에
걸리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인의 체형에 맞
는 최적치를 찾아야 했다”며 “개발 과정
에서 사이즈코리아센터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이즈코리아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이크로리아센터'에서 현동철 핵사휴먼케어 차장이 수동형 허리 근력 지원 로봇 '핵토르'를 시연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20년 이상 축적한 한국인 인체치수 대량자료(빅데이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인체치수 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가 상주하며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의 산학연 보급과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헥사휴먼케어 연구진은 사이즈코리아센터의 자문과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를 지원받아 대·중·소 세 가지 크기의 목업(실물 형태의 모형)을 제작했다. 건설회사, 철도회사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시험한 결과 작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여섯 가지 크기로 다변화해 곧 양산할 계획이다.

헥사휴먼케어는 능동형 착용 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보행을 보조하는 재활훈련용 로봇으로 위화감 없이 달라붙어 자신의 몸처럼 느껴야 하므로 신체에 맞는 개인화가 수동형보다 더 중요하다. 개인마다 몸에 딱 맞는 맞춤 제작을 위해 연구진은 사이즈코리아센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 직접 자기 몸을 스캐닝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다. 3차원(3D) 전신 스캐너와 손과 발 등에 특화된 부분 스캐너 등 고가의 인체 측정 장비와 데이터 분석·가공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이즈코리아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마의자·마스크 등 사이즈코리아 활용

헥토르 말고도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를 반영한 헬케어, 자전거 등 다양한 제품이 사이즈코리아센터에 전시돼 있다.

한국인 체형에 최적화한 안마의자도 있다. 김선영 사이즈코리아센터장은 “예전에는 안마의자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일본인, 특히 고령자의 작은 체형에 맞



1 20~60대 남녀별 두상 표준 모형 2 한국형 이동 검사소(워크스루) 3 한국인 체형에 최적화한 안마의자

사이즈코리아센터에서는
내부 연구원들에게 자문한 뒤
전문가 상담(컨설팅)이 더 필요한
업체엔 인간공학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상담 비용까지 지원한다.
2021년에는 15개 업체가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았다.

춘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혼수품으로 안마의자를 살 정도라 한국인 체형에 맞는 안마의자의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안마의자는 한국인 체형에 맞게 인체공학적 프레임을 설계해 편안한 착석감을 주며 마사지 효율성을 높인 덕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7.9% 성장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형 이동 검사소(워크스루)’도 있다. 의료진이 방호복 없이 부스 안에서 장갑을 끼고 부스 밖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형태다. 김선영 센터장은 “의료진이 부스 안에서 진료할 때 어깨와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깨높이 등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를 반영했다”고 했다.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를 반영한 두상 모형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쓰임새가 늘어났다. 김 센터장은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연령·남녀별 표준 두상을 제품 개발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업체 대표들이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개발하면서 본인 얼굴에 맞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사이즈코리아센터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별로 10개의 두상 표준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3D 프린터를 갖춘 업체는 표준 두상을 직접 출력해 이용할 수 있도록 3차원 형상 데이터도 무료로 제공한다.

책부터 전문가 상담까지 무료 제공

제품들 옆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책 10여 권이 전시돼 있다. ▲마스크팩, 고글, 헬멧, 모자 등 머리 관련 제품 ▲배낭, 전동 침대, 허리띠 등 몸통 관련 제품 ▲등산 지팡이, 헤어드라이어, 통갑(텀블러), 전자책 단말기, 펜치, 장갑, 스마트 밴드 등 손 관련 제품 ▲건식 족욕기, 다리 보호대, 공기압 안마기, 종아리 안마기 등 다리 관련 제품 등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김 센터장은 “사이즈코리아센터의 데이터 가운데 어떤 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소개하는 책”이라며 “만약 안마의자를 디자인할 때 30대의 엉덩이너비는 어느 정도 되니까 좌판(앉는 부분)은 이

국가 주도 ‘휴먼 빅데이터’ 수집·보급



정부는 1979년 실시한 ‘제1차 국민 표준체위 조사’ 이후 약 5년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인체 대량 자료(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2003년 제5차 조사부터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이즈코리아)’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인체치수, 형상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국가 주도 데이터 사업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

사’ 결과를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는 남성 172.5cm, 여성 159.6cm로 1979년 1차 조사 때보다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각각 커졌다.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만 20~69세 한국인 6839명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 137개, 3차원 측정 293개 등 모두 430개 항목을 측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주도의 데이터 사업으로 40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에는 격동의 시대를 거친 우리나라 사람의 인체 변천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육군본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단국대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 대한인간공학회, 한국의료학회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데이터 활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 변화와 인체치수 조사 결과를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데이터 수요 발굴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렇게 적용하라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사이즈코리아센터 누리집(sizekorea.kr)에서도 자유롭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주도해 인체치수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나라도 많지 않지만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데이터를 활용하면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류학 박사인 그는 의류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의류업체들은 맵시 도우미(피팅 모델)에 맞는 본(샘플)을 만든 뒤 치수를 벌려 나갔다. 어느 정

도 벌려야 하는지도 명확한 기준 없이 판매율을 보면서 조금씩 고치는 식으로 치수를 정했다는 것이다.

사이즈코리아센터에서는 내부 연구원들에게 자문한 뒤 전문가 상담(컨설팅)이 더 필요한 업체에 인간공학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상담 비용까지 지원한다. 2021년에는 15개 업체가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았다. 김 센터장은 “사이즈코리아센터는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 사람의 몸에 잘 맞는 제품을 만들어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사이즈코리아센터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글·사진 원낙연 기자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⑮

윤석열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네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열다섯 번째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100만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지역과 대학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

김민주 기자

2022년 2월 18일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 인식개선과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희망이음 프로젝트 5개 부문별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결혼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을 유연화하고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교육기관(부트 캠프)을 설치하고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를 활성화한다.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와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을 마련한다. 또한 적정 규모의 정보 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을 개선한다.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학교를 운영하고 마이스티고 지정을 확대한다.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서 지원하고 디지털문제해결센터(가칭)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SW·AI 영재교육, 다중 문해력교육, AI 분야등 온라인공개강좌(K-MOOC)를 확대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하고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를 연계하며 통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민관협력 강화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대효과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한다.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4년 2월까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개편한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이해능력),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착을 지원한다. 고교 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한다.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을 지원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을 확대한다.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또

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대효과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한다.

국정과제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대학규제 개혁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를 혁신한다. 대학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 도입을 추진한다.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성인 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기술발굴→고도화→

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대효과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신생기업(스타트업)을 활성화한다.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유치원+보육원)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을 확대한다. 또한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

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24년부터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

2026년까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을 확대한다.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기대효과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국정과제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2023년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2026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를 양성하고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을 강화한다.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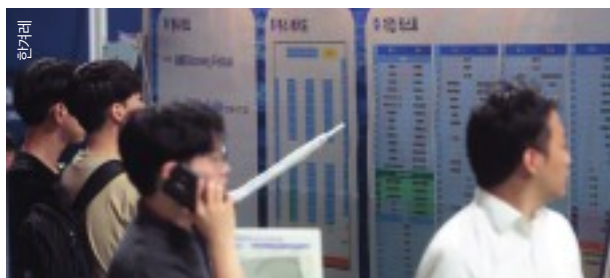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마이스터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경계 허무는 메타버스로 공간의 제약 없앤다

실감미디어 분야 1위 닷밀 정해운 대표

윤석열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내세웠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실감미디어·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실감미디어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닷밀 정해운 대표를 통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현주소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은 환상적인 미디어아트 기술로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호평받았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을 캔버스로 활용해 불빛으로 이뤄진 거대한 비둘기가 경기장 바닥을 노닐게 하거나 수천 개의 불빛이 만들어낸 기둥이 바닥에서 하늘로 원통형으로 차오르는 등 미디어아트와 퍼포먼스의 주인공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무대를 완성했다.

이 프로젝트를 맡았던 닷밀의 정해운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모든 직원이 열정을 쏟아부었던 국제적 행사”라며 “부담이 컸는데 반응이 좋았고 성공적으로 끝나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2년 설립한 닷밀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외에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국내 1위 실감미디어 기업이다. 정 대표는 실감미디어가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감미디어는 TV나 휴대전화 같은 틀(프레임)을 벗어나 실제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건물, 야산 등에 프로젝터, 발광다이오드(LED), 홀로그램(3차원 입체사진) 등을 활용해 호랑이가 나타나게 하거나 건물이 튀어나오는 등의 착시효과를 줄 수도 있죠.”



1 8월 공개 예정인 제주도의 디지털 테마파크 2 정해운 대표

실감미디어 기술 활용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닷밀은 창업 초창기 소규모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연출하는 업체였지만 차별화된 연출력으로 미디어파사드(건물 바깥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일) 업계에서 빠른 성장을 거듭 수 있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회식 연출을 맡은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엠넷아시아뮤직어워즈(MAMA),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등을 맡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미디어 파사드 연출을 했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경남 통영에 야간형 디지털 테마파크인 ‘빛의 정원, 디피랑’을 연출하며 새로운 실감미디어 문화를 이끌고 있다. 2020년 10월에 문을 연 디피랑은 경남 통영시의 디지털 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로 통영 남망산조각공원 내 1.5km 산책로를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대상물에 빛으로 이뤄진 영상을 투사해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일루미네이션(장식용 조명) 등을 이용해 ‘신비폭포’, ‘비밀공방’, ‘빛의 오케스트라’ 등 15가지 주제가 있는 디지털 파크로 변신시켰다.

“디피랑 디지털 산책로는 관광객이 ‘달 밝은 밤에 산책하는 경



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어요. 밤이 되면 수많은 아름다운 빛과 미디어아트로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도 무척 좋아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이후 누적 관람객 30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높답니다.”

닷밀은 8월 제주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메타파크인 ‘루나폴’을 열 계획이다. 메타파크는 확장 가상세계 메타버스와 테마파크를 결합한 말로 실내의 39만㎡(12만 평) 규모의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테마파크다. 루나폴은 소원을 너무 많이 빌어 무거워진 달이 땅에 떨어졌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깨진 달에서 흘러나온 소원을 찾으러 다니는 콘셉트다.

“닷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파크를 온라인에 똑같이 3차

원(3D)으로 구축하고 있죠. 예를 들어 친구 한 명은 온라인으로 테마파크에 접속하고 또 다른 친구는 오프라인으로 제주 테마파크에 방문해 둘이 만나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죠. 결국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메타파크는 오프라인을 연 후에 평가를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개방도 실감미디어 활용했으면”

실감미디어 업계의 선두를 달리는 닷밀은 2023년 여름에 기업공개(IPO)도 준비하고 있다. 기업공개는 앞으로 정 대표가 그리는 회사의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좀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닷밀은 아날로그한 부분들에 대해 기술과 콘텐츠를 접목해 새로운 장르로 재탄생시키는 데 앞장서고 싶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존의 놀이문화도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실감 나게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정 대표는 실감미디어 시장이 반짝 나왔다가 사라질 분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실감미디어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더 실감 나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진보된 방식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 대표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낮에는 청와대 내부 공간에 영상관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밤에는 디피랑에 적용했던 나이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해 청와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실감미디어 기술 수준이 세계 3위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특히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훌륭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뛰어난 인력이 많죠. 앞으로 다양한 뉴미디어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닷밀은 앞으로 실감미디어 시장에서 더욱 영역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정 대표는 “실감미디어는 원천 기술보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라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생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도전하면 충분히 전망이 있다”고 밝혔다. ●

글 김민주 기자, 사진 닷밀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⑯

윤석열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네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열여섯 번째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해 녹색경제로 전환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복원하고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도 완성할 방침이다. ◎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2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국가스공사 부스에 전시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2023년 3월까지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를 적용한다.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2027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 도시를 확산한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을 확대한다.

녹색분류체계 보완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지원한다.

녹색산업·기술육성

20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종합 컨설팅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대효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녹색산업 규모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정과제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관리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0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한다. 또한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강화한다.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를 고품질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를 통합하고(20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20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를 균등화한다. 또한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을 조성(2022년~)하고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을 정비하고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유희지, 훼손지 등 생태 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2026년까지)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을 시행(2024년~)하고 곰 사육 종식(2025년까지),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제방정비율 향상(국가하천 80% → 90%) 등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한다.

국정과제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청사진(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2022년)한다. 또한 화석연료 발전비 중 축소를 추진(2027년 40%대 목표)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023년~)한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축소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을 제도화(2023년~)한다.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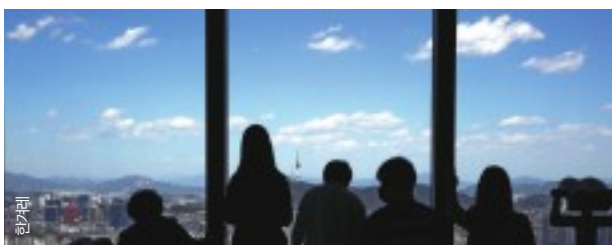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 또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2022년)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2024년 50→40 $\mu\text{g}/\text{m}^3$)한다.

기대효과

초미세먼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으로 도약(2021년 18 $\mu\text{g}/\text{m}^3$ →2027년 13 $\mu\text{g}/\text{m}^3$)한다.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하고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 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제외한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2022년)한다.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026년까지 62.6%)하며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한다.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 열분해시설 10곳을 확충한다.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20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026년까지 최대 5억Nm³/년 생산)한다.

기대효과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160만 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하고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20년 0.9%→2026년까지 10%)한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⑰

윤석열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열일곱 번째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에게 내 집 마련 기회의 확대 등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 특화 취·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정책 참여의 장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김민주 기자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를 공급하고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 등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기준 60~70%를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반영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게 조기 개입해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

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을 추진하며 군복무 중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는 지원대학을 확대한다.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 형성을 기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의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 록금 부담을 경감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를 개선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또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를 강화한다.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절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연결해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계좌를 발매한다. 또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을 검토하고 구직단념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확대한다.

기대효과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를 보장한다.

중양부처와 지방자치단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굴·지원한다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현 190개) 및 청년 위촉을 확대한다.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한다.

법제 개선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를 개선한다.

기대효과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해 정책효과를 제고한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공급



미세먼지 대책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

2021년 $18\mu\text{g}/\text{m}^3$ 에서 ▶ 2027년 **13** $\mu\text{g}/\text{m}^3$ 로 개선

13



순환경제 완성

생활플라스틱 발생량

2020년
160만 톤에서

▶ 2025년

20% 감량



탄소중립 이행방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열분해율

2020년 0.9%에서

▶ 2026년

10%
로 확대



기후위기 대응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80%에서

▶

90% 로 향상



청년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60~70%에서 ▶

80% 로 완화



“학생들 기회 넓히는 정시 비중 확대 찬성” “사회 초년생 전세자금대출 한도 올려야”

청년에게 듣는 **청년 국정과제**

윤석열정부가 국민과 약속에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세대를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취·창업 등 일자리 기회 창출, 교육의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세대를 위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위해 자산 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세대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모두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 폼으면”

정진욱(23) 씨는 대학 3학년이 되면서 휴학하고 학원강사로 활동 중이다. 처음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정식으로 학원강사 일을 시작했다. 아직 대학 생활을 즐길 나이에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물론 선배들처럼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불확실한 취업 경쟁을 위해 몇 년을 소비하면서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급이라면 좋아하는 일을 일찍 시작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대학 생활에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가 기대했던 대학의 낭만을 찾기 힘들었다. 학생 대부분이 대기업 등에 취직하기 위해 도서관만 찾았고 동기와 선배들도 행정고시나 로스쿨 진

학 준비 등으로 고시생 모드로 살았다. 이 때문에 정씨는 일찍 학원강사로 접어든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물론 진로를 완전히 결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최대한 오래 열심히 하고 싶다.

“학원강사는 자유분방한 제 성격에도 잘 맞고 시간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또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저도 잘 가르쳐주고 싶고 최선을 다하게 돼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교육정책을 논의

중이다. 대입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정 씨에게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정시의 비중 확대 부분이다.

“제가 고3이었을 때는 정시 비중이 낮았어요. 그래서 내신 경쟁이 치열했는데 한 과목에 1~2개만 틀려도 ‘일류’ 대학을 갈 수 없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입시가 쉽지 않은데 고2, 고3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의 문이 더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학교에서도 정시보다 내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의미에서 정시를 적극 늘리길 바랍니다.”

정 씨는 정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월세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올려야 한다.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실천과제	대표 세부 내용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사다리	-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취업지원 혁신 - 청년창업 기반 강화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 청년원가주택 도입, 주택청약제도 개선 -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출시·개선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 - 국가장학금 대상·지원금 확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 공정 기반 구축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취약청년 출발 지원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 청년도약계좌 출시 - NEET 청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 인프라 정비 -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정비	- 청년보좌역 배치·운영 - 청년맞춤형 원스톱 플랫폼 개발 - 자격제도 실무경력 요건 완화



6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교사, 제대 후 취업을 준비하는 군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면서 “현장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두 천천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정적 생활 위해 세심한 정책 뒷받침됐으면”

충북 청주에서 살던 직장인 신지현(29) 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회사 근처가 집값이 비싼 지역이라 월세와 전세가가 기존에 살던 곳보다 엄청 높았던 것.

“처음에는 당연히 회사 근처에서 월세로 살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매월 지출해야 하는 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을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제 월급으로 생활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세를 알아봤는데 2억 원 이하 전셋집 찾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정말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들을 위해 대출한도 1억 원(연 1.2% 금리)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신 씨는 모두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회사 근처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가장 작은 평수의 원룸과 빌라를 알아봤는데 전세가가 2억 원 전후로 형성돼 있었어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출한도가 1억 원이라 1억 원가량 더 필요했죠. 제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신 씨는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23㎡(7평)짜리 원룸을 구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회사 출퇴근이 힘들지만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월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신 씨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월세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청년의 꿈 실현하는 희망의 다리 놓는다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윤석열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년을 강조한다. 청년 문제는 전 세대의 문제이며 전 지역에 걸쳐 해법을 찾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게 새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국정 비전과 목표에 따른 110대 국정과제의 지원 대상을 연령층별로 나뉘보면 청년층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윤석열정부에서 각 부처는 기존 청년정책들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세심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청년층 관련 새 정부 국정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둘째,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 참여의 장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 가운데 당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책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에다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역세권 첫집’ 20만 호를 더해 모두 50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하기로 했다.

파격적 금융지원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청년원가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발표한 1호 공약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꺼려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주거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층에게 원가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건설 원가와 사업비의 이자 비용에다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서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이와 달리 청년원가주택 분양 가격은 오로지 건설 원가와 이자 비용만으로 구성된다. 청년원가주택에는 파격적인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빌려줘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예컨대 분양 가격이 3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초기에 6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원가주택은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신혼희망타운’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혼합한 방식으로 공급 구조를 설계한다. 특별공급을 통해 청년층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고 수익 공유형 장기 모기지를 제공해 자금 조달 부담도 덜어준다. 대신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환매 우선권을 가지며 모기지를 제공한 주택도시보증기금도 시세차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래도 정부는 매매차익의 최소 70%를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청년원가주택이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관련 금융제도 실수요 맞게 개선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공급에 앞서 주택 관련 금융제도를 실수요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층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담보 인정비율(LTV) 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 최초 70%)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지역에 상관없이 LTV의 최대 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에다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역세권 첫집’ 20만 호를 더해 모두 50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 개요

공급 물량 5년간 30만 호	입주 자격 무주택 청년층	금융 지원 주택담보비율(LTV) 80% 적용 장기 모기지 제공	전매 제한 입주 후 5년	매각 방법 정부기관에 매각, 시세차익 70% 보장
------------------------------	----------------------------	--	----------------------------	---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주거 안정 위한 주요 부동산 공약

• 5년간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신규 공급 •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 '역세권 첫집' 20만 호 공급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비율(LTV) 80% 적용 • 양도세율 인하,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검토 •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



〈한겨레〉 자료 사진, 내용과 관계없음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 추세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부실 위험과 금융 불안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에서 2억 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 신청하려면 모든 금융 채무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7월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금융 채무 총액 1억 원 초과 대출 신청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청년과 같은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이미 은행연합회에서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란 모범 규준을 발표했다.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란 DSR 산정 시 대출 만기 때까지 예상되는 소득 변동 폭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한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대출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40세 미만의 대출 신청자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자가 현재 다니는 직장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별 '평균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장래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내도록 했다. 만 40세 이상부터는 월 급여액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때문에 장래소득 기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의 증가 폭이 커진다. 20년 이상 만기로 만 20~24세가 대출을 받으면 2022년 기준 평균소득 증가율은 76.3%, 만 25~29세는 47.7%, 만 30~34세는 23.9%다.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40% DSR 규제에서도 대출 한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305만 7000원을 받고 별도의 금융 채무가 없는 만 30세 직장인이 20년 만기로 연리 2.5%의 대출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대출 최대한도는 2억 3000만 원이지만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2억 5800만 원으로 한도가 12.2% (2800만 원) 더 늘어난다.

목돈 마련 돕는 청년도약계좌

새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청년도약계좌'다. 2023년 발매가 목표인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결합해 목돈 마련을 돕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정부가 매달 지원(3년 만기)하는 '매칭 적금'으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소득(3개월 이상)과 가구 재산(대도시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다만 2022년 7월 신청분(9월 적립 시작)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가입 자격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여기에 최장 10년 만기에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해 2023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년 만기 상품으로 연 3.5%의 복리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논의 중이다.

이런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은 해지 뒤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장기 실직 또는 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장점이다.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표상으로 청년 고용 사정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만 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높아진 47.2%로 1999년 연령별 고용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인구가 지난 1년 동안 19만 7000명 감소한 가운데서도 청년 취업자 수는 18만 6000명이 늘었다. 청년 취업자 수는 2021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 매달 1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 청년 등 고용 여건 개선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층도 여전히 많다. 따라서 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려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기업에는 미래 신산업과 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풍부한 청년 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청년 대상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제공의 확산과 다양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은 2022년부터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대표적인 민관 협업 사업이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프로젝트다.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청년 대상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제공의

확산과 다양화에 힘을 쏟는다.

이닉스, 포스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1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해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기업 활동을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멤버십 인증을 받은 기업 주도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와 참여자 수당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또 청년 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비용 부담, 정보 부족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이 사업에는 CJ 올리브네트웍스, 삼익THK, (주)조인트리, 한국도시농업(주) 등 38개 기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돼 단독 또는 협력체(컨소시엄) 구성으로 13가지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도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53개 기업 및 단체가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해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성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새 정부는 이런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더욱 세분화해 더



1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청년들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정부 2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입교식 | 삼성전자

많은 청년이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의 창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은 기존의 청년창업사관 학교를 중심으로 기존의 청년창업 지원 기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산업 또는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 학교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술개발, 마케팅(홍보),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교육과 컨설팅(상담), 멘토링(지도)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할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미래 역량을 키우려면 정부 각 부처와 대학-기업 간 연계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인재 양성 사업은 부처마다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도 따로 투입하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혁신 인재 양성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인재 양성 예산을 협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협업예산이란 수요자 맞춤형 예산 편성,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예산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편성하는 제도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협업예산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종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박순빈 기자



이주의 정책뉴스

자율주행차 서울 강남 달린다 차선변경·회전·유턴 등 스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서울 강남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등 혼잡도심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운행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에 국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서비스를 공개하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 예약, 차량 호출, 경로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9일 서울 강남 현대오터베사옥에서 현대자동차가 개최한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 참석해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자율주행 로보라이드를 시승했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혼잡한 지역인 서울 강남 도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해 레벨4 완전 자율주행에 한 발 더 다가갈 전망이다.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로에서 자율 주행하는 레벨3 기술은 상용화 기술이 확보돼 있으나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각국이 개발·실증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표적 혼잡구간인 서울 강남에서 레벨4 기술 실증에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행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로보라이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진모빌리티 등과 협업해 자율주행과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국민 체감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차량은 보행자·대형버스 등이 혼재하는 도로상황에서 스스로 차선변경, 좌·우회전, 유턴 등이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3852

올 여름 서핑 갈 땐 '서핑지수' 확인하세요

서핑이 가능한 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핑지수'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6월 8일부터 전국 4개 해수욕장의 서핑지수를 본격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21년 7월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바다 상태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핑지수를 새로 개발해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서핑지수는 해당 해역에서 서핑이 가능한 지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나타낸 지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서핑 수요가 많은 동해 망상해수욕장과 양양 죽도해수욕장, 태안 만리포해수욕장까지 서핑지수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서핑 수요가 높은 해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더 늘릴 계획이다.

서핑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해양예보방송(www.youtube.com/channel/UCM7RcZA1CiuyhQIOIOSNJ0g)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임채호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 "부산 송정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등지에서 서핑을 즐기려는 분들은 미리 서핑지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핑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051-400-4385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생활해양예보지수 중 서핑지수 | 해양수산부

지역 자원으로 지역 문제 해결 ‘마을기업’ 25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6월 9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우수 마을기업’ 16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9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과 판로개척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 마을기업은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최대 1억 원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3곳 마을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우수마을기업은 2곳,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4곳 더 추가했다.

전국의 마을기업 중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나타낸 16곳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제품개발, 기반시설 확충, 홍보·판촉 등 마케팅 비용 등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설립 된지 2년 이상 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기업 중 9곳을 선정했다. 이 마을기업에는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1억 원이 지원돼 마을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문제 해결에 마을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마을기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044-205-3436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홍보영상 갈무리

감염병 백신·치료제 전임상시험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의 상시적인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을 지원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 등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기여했다.

전임상시험이란 치료제와 백신 등 의약품의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필수 단계로, 세포단위 실험 및 소동물·영장류 실험 등을 통해 약물의 유효성 및 독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백신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전임상시험을 우선 지원한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6월 21일까지 전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산·학·연 기관이며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portal.kribb.re.kr/kpec)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3



6월 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 국민 품으로

④ 용산공원 시범 개방

용산공원 시범 개방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일 5회로 나눠 1회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하루 최대 2500명 관람이 가능하다.



주요 장소 소개

신용산역 출입구(GATE 14)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던 출입구로 Gate 14로 불리었습니다. 이전에는 지나갈 수 없는 닫힌 문이었지만, 용산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는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가 될 것입니다.

장군숙소

신용산역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방문객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형태의 공간으로, 이국적이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야구장

4개의 야구장이 들어선 곳으로, 대통령실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시범 개방 기간 중에는 전망대, 바람정원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스포츠필드

스포츠필드는 미군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던 부지로 축구장, 야구장 및 야외공간으로 조성되어 국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국민이 열다

① 환영 행사

국민과 걷다

- ② 해설사와 공원산책
- ③ 용산공원 사진전
- ④ 용산공원 가로수길

국민과 만나다

- ⑤ 대통령실 앞뜰 방문
- ⑥ 의장대 공연
- ⑦ 국민의 바람정원
- ⑧ 전장대 '바라봄'

국민이 만나다

- ⑨ 경청 우체통
- ⑩ 국민의 땅, 전국 씨앗 키트
- ⑩ 가족 피크닉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6월 10~19일 열흘간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범 개방은 당초 5월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120여 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해 국민을 맞이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

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시범 개방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일 5회로 나눠 1회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하루 최대 2500명 관람이 가능하다.

장군숙소-대통령실 남측-스포츠필드 구간

국토부는 4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

리를 마련했다. 각각 방문객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 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국민이 만든다' 등이다.

시범 개방의 시작점이자 이국적인 풍광을 사랑하는 장군숙소는 나무 그늘에서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벤치가 설치된다. 탁 트인 광장과 함께 길쭉으로 늘어선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실 남측 구역은 식음료 코너가 있는 휴게공간인 카페거리로 운영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남측구역에서는 대통령실의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결정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뜰에 전시된 헬기와 특수차량 등 대통령 경호장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필드에는 푸드트럭, 간이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쉽터로 운영된다. 국내 최초로 20m 초대형 그늘막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개방 기간 행사장 곳곳에 '경청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차 6대를 준비했으며 현장 안내부스 5곳, 다양한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신청은 관련 누리집 3곳(www.yongsanparkstory.kr, www.yongsanparkstory.com, www.yongsanparkstory.net)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 070-5138-8095)

그늘막·벤치·식음료 등 편의시설 확충

관람 예약은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시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뜰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는 신분증 없이 보호자(부모·인솔교사)와 동반하는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 개방과 함께 지난 2020년 7월 이미 개방을 시작한 용산공원 남동쪽의 장교숙소 5단지의 개방 공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교숙소 5단지에서는 기존 개방 시설에 더해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실내 휴게공간, 다목적실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대통령실 새 이름 5개 압축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6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최종 당선작은 5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의 배점을 각각 70대30의 비율로 합산해 선정하기로 했다. 5개 후보작은 6월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권영걸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은 "1948년부터 12년간 '경무대', 60여년간 '청와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등 4개 동이 추가로 개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범 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120여 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순빈 기자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21세기형 의병입니다”

청소년 현충시설 체험·탐방 현장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세우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현충시설의 세계화에 일조하기 위해 현충시설 체험·탐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충시설 체험·탐방에 참여한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문화교류해설사, 청소년들의 체험기를 들어봤다.

학생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체험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2017년부터 국가보훈처 공모사업인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문화재와 현충시설 등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탐방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은 “미래 사회를 이끌 우리 청소년들이 선조들의 독립운동 흔적을 탐방하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원했다”면서 “이를 통해 현충시설과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탐방 코스는 서울시 종로





1 학생들이 손형사 해설사와 현충시설 탐방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학생들

손형사 해설사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한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충(忠)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孝)다. 충과 효의 정신만 간직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구에 위치한 탑골공원에서 시작된다. 탑골공원은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3·1운동의 발상지이며 고종 때 만들어져 황실 관현악단이 황실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던 장소다.

2017년부터 문화교류해설사로 활동한 손형사 해설사는 “사람들은 흔히 탑골공원이 어르신들만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한 다”며 “하지만 탑골공원은 원각사지십층석탑, 팔각정 등이 지 키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생생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 고 설명했다.

“1919년 3·1운동 때 수많은 시민이 탑골공원에 모였고 이곳 에서 학생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게 예의예요”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못했 을 거라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희 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암중학교 2학년 경민지 양은 코로나19 발생 직전 국제교류문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친구 소개로 우연히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일제강점 기, 한국전쟁 등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경민지 양은 “탑골공원이나 현충시설에 대해 평소 잘 알지 못했는 데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 “특히 우리나라 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감동했다. 그분들을 꼭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지 양은 탑골공원 안에 있는 ‘독립운동 벽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벽화에는 남녀노소가 ‘대한독립’이라는 하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당시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벅찬 감 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민지 양은 이번 탐방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UCC(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만들 어 올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현충시설 사진을 촬영해 처음으로 UCC를 만들었는데 무척 재밌 었어요. 그 뒤로 흥미가 생겨 우리 역사를 주제로 매달 UCC를 만 들고 있어요.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민지 양은 아직 현충시설을 찾아가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 은 말을 전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게 청소년의 역할 아닐까요?”



4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2022년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6~11월까지 한 달에 한번씩 진행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참가비는 무료다.
초등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한국어 두 반,
영어 한 반을 운영한다.

3·4 학생들이 3·1운동 당시 상황이 새겨진 돌벽화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5·6 학생들이 독립선언서 낭독 연습을 하고 있다.



5

탐골공원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직접 독립선언서를 한 줄씩 읽어보게 하고 만세 삼창을 부르게 하죠. 그럼 학생들의 표정이 엄청 진지해져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우리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죠.”

또한 탐골공원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동상과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동상이 있다. 한용운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손병희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으로 3·1운동을 주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손 해설사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당시의 흔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당장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직접 느낀 우리의 역사를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해설사는 탐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한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충(忠)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孝)다. 충과 효의 정신만 간직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누리소통망(SNS)에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일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21세기형 의병이나 다름없죠!”

영어로 UCC 만들어 세계에 우리 역사 홍보

탐골공원 체험에 이어 다음 방문지는 일제강점기에 항일운

동의 거점이 됐던 천도교중앙대교당,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독립운동가 이상재 집터, 조선어학회 터, 손병희 집터, 3·1운동 책원비와 6·10만세운동 기념비가 있는 중앙고등학교 등이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문화교류해설사로 활동하는 신명숙 해설사는 “학생들이 현충시설 탐방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저 역시 학생들과 함께 배운다”면서 “이런 체험 활동은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문화재와 역사시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신 해설사는 “부모가 자녀와 나들이할 때 현충시설이나 문화유적지, 고궁 등을 방문한다면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탐방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현충시설을 탐방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UGC(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만들어 누리소통망에 올리며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온라인 체제 기반)인 제페토에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탐방 과정 중 찍었던 사진들을 올리며 현충시설을 홍보한다.

유정희 원장은 “독립운동 등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UCC 만들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교사 지도 아래 스스로 동영상을 만든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와 문화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몰라서 당황해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서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싶었어요.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외국인 교사들과 함께 탐방하고 영어로 UCC를 만들어 올리며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2년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6~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참가비는 무료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한국어 두 반, 영어 한 반을 운영하며 참가자는 1년에 300명 정도다. ●

글 김민주 기자, 사진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상명사범대 부속여중 2학년 박혜림 양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남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탐방 활동을 하기 전에 194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때에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말모이>를 감동 깊게 봤기 때문이다.

박혜림 양은 “평소 현충시설이나 호국보훈의 달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영화 <말모이>를 보고 큰 관심이 생겼다”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현충시설 탐방을 통해 탑골공원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다. 평소 어른들만 가는 평범한 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3·1운동이 일어났던 엄청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탑골공원에서 문화교류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니 3·1운동 당시의 과정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사연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장소였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장소에 가봤다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문화재를 찾아다니고 UCC(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만들어봤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게 특히 좋았다. 혜림 양은 현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문화단 해설사로 활동하며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와 문화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역사와 관련된 UCC를 영어로 만들거나 우리의 전통 놀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19로 현장 해설을 못 나갔는데 2022년부터 다시 나가게 됐어요. 경복궁 등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설명해주면 어떨지 설레고 흥분돼요.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윤봉길 의사 정신은 지금도 국민에 용기와 위로”



“매한 윤봉길 의사의 정신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주고 분열된 남북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명노승 매한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회장 인터뷰

“중국 100만 대군과 4억 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식 겸 일본군 상하이 점령 경축식, 매한 윤봉길 의사(본명 윤우의)가 물통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 등 일곱 명을 처단하자 장제스 당시 중국 국민당 주석은 이같이 말했다. 장제스 주석은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했고 이는 침체됐던 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장제스 주석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열린 카이로회담(1943년 11월)에서 카이로선언문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킨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연합국 수뇌부를 설득했고 이는 곧 광복으로 이어졌다. 물통 폭탄에 의해 다리가 절단된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는 1945년 일본을 대표해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에 참석하는 치욕적인 역할을 떠맡았다. 조인식을 참관한 9개 연합국 중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조선 청년의 독립을 향한 열망의 흔적은 일본의 패망을 지켜본 셈이다.

“윤봉길 의사는 교육가·농촌 개혁가이자 시인”

2022년은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지 90년이 되는 해다. 윤 의사는 일제 군법회의에서 사형 결정이 내려져 1932년 12월 19일 총살형으로 만 스물넷에 순국했다. 명노승 매한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회장은 9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윤 의사의 뜻을 계속 되새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명노승 회장은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사변 이후 파죽지세로 침략을 일삼던 일제의 야욕에 제동을 걸어 힘을 잃어가던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줬으며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던 민족들에게 불의에 저항하는 뛰어난 정신력을 보여줬다”면서 “윤 의사의 정신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주고 분열된 남북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1965년 발족한 기념사업회는 1988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매한윤봉길의사기념관을 세우고 매한의 사상 연구와 사료 수집, 매한 관련 사적지 보존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장학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 농촌 개혁가, 시인으로서 윤 의사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것 역시 기념사업회의 주요한 사업이다. 명 회장은 윤봉길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물통

1 2021년 12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어린이역사합창단원들이 추모가를 부르고 있다. | 한겨레

2 양복 입고 모자를 쓴 윤봉길 의사의 모습. 취업하기 위해 1930년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윤봉길 의사는 중국 칭다오에서 1년 넘게 고공 생활을 하면서 상하이로 갈 노잣돈을 모았다. | 매한윤봉길의사기념관



폭탄 투척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적장에게 폭탄을 던진 열혈 독립투사만이 윤봉길 의사의 모습 전부가 아니에요. 열아홉 살 때 야학을 열어 민족정신 계몽에 앞장선 교육자이기도 하죠. 이후엔 농촌계몽운동을 통해 식민 통치하에 있는 조국을 새로 건설하는 데 매진하셨어요. 농촌을 부흥시켜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 또 다른 독립의 길이라 생각해 <농민독본>을 쓰고 ‘월진회’를 만들어 농민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 애국심 고취 등의 활동을 했죠. 일제의 식민 교육을 거부하고 서당인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공부한 시기엔 서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어요. <한시집>, <임추>, <명추>, <옥타>, <염락> 등 5권의 한시집에 직접 짓거나 애송했던 340여 편의 시가 전해지고 있어요. 기념사업회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아준 청년’… 중국, 기념사업회 전폭 지원

중국 상하이에 지부를 둔 기념사업회는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윤 의사의 의거 현장인 홍커우공원(루쉰공원)에 매 헌기념관을 건립·운영하는 데 100%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념식에 홍커우구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매년 참석하는 등 윤 의사의 의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적극적 지원 배경에는 윤 의사가 자신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줬다는 중국인들의 인식이 자리한다. 상하이 의거가 있기 전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으로 중국인들 사이에선 반일 감정이 악화돼 있던 건 물론 일본의 잔폭로 중국 농민과 우리 농민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진 만보산사건으로 조선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는데 조선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명 회장은 “윤 의사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의 수괴를 죽이는 것이 중국과 우리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앞서 조선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중국인들은 윤 의사의 의거가 자신들의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해 감동했고 이후 장제스 주석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했듯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 상하이 지부는 2021년 네 차례 실시했던 윤 의사 관련 강연을 2022년에 중국 전역의 한인 학교와 조선족 학교 등을 대상으로 30회 가까이 늘리는 등 중국 동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호국보훈 사업에 더욱 힘을 계획이다.

국내에선 매년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기념사업과 행사가 더욱 다양하게 준비됐다. 우선 11월 17일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기념사업회는 전 세계의 학자를 초빙해 윤 의사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4월 21일엔 국회에서 ‘상하이 의거 90주년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같은 달 김학준 매한 연구원장이 저술한 <매한 윤봉길 의사 평전>도 발간했다.



**“우리는 독립을 성취했지만
6·25전쟁이라는 참극을 겪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윤봉길 의사의 평화 정신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윤봉길 의사 농민운동 기록화 4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를 보도한 <경성일보> 1932년 5월 4일자 기사
| 매한윤봉길의사기념관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도 여럿 마련했다. 윤 의사의 한시와 어록을 주제로 한 ‘전국 서예회화대회(10월)’와 ‘매한 전국 시낭송대회(6월 30일까지 접수)’가 개최될 예정이며 <윤봉길 의사 사진전>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국민들을 직접 찾아간다. 윤 의사가 순국한 일본 가나자와를 견학하는 청소년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 의사 정신, 남북문제 해결 열쇠 되길”

무엇보다 기념사업회는 매한윤봉길의사기념관이 자리한 양재시민의숲 명칭을 ‘매한시민의숲’으로 바꾸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명칭이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 정신을 드높이고 이는 곧 국민 통합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뜻에서다. 명 회장은 이 같은 기념사업회의 다양한 노력이 윤 의사가 꿈꾼 대한민국의 평화로,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윤봉길 의사는 식민지 시대 노예로 사는 삶을 견디지 못했어요. 인간의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는 평화의 시대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바탕이 된, 민족의 독립을 넘은 세계평화가 이어지길 바랐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독립을 성취했지만 6·25전쟁이라는 참극을 겪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윤 의사의 평화 정신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

조윤 기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청년 윤봉길(OX퀴즈)

① 윤봉길은 본명이다.

▶ X (윤봉길 의사의 본명은 윤우의(尹禹儀), 본관은 파평(坡平), 호는 매헌(梅軒)이다.)

② 윤봉길 의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 등 7명을 처단했다.

▶ O

③ 윤봉길 의사가 던진 건 도시락 폭탄이다.

▶ X (윤봉길 의사는 물통과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던진 건 물통 형태의 폭탄이었다.)

④ 윤봉길 의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쟁을 하다 20대에 순국했다.

▶ O

⑤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설했다.

▶ X (중국은 자신의 원수를 조선의 청년이 응징했다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 도왔다.)

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이 우리의 독립을 인정한 것은 ‘카이로 회담’이다.

▶ O

⑦ 윤봉길 의사는 교육가, 농촌 개혁가, 시인이기도 했다.

▶ O

⑧ 2022년은 윤봉길 의사 의거 100주년이다.

▶ X (90주년이다.)

⑨ 매한윤봉길의사기념관은 서울 효창공원에 있다.

▶ X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다.)

⑩ 윤봉길의사가 순국한 곳은 중국이다.

▶ X(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순국했다.)

자료: 매한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 호국의 달에
떠나는
역사기행지



인천 강화도 '강화나들길 2코스 호국돈대길'

초여름, 햇살은 제법 따갑지만 그늘 안에 들어서면 이내 서늘한 기운이 온 몸을 식혀준다. 나들이에 좋은 계절이다. 더구나 코로나19도 잠잠해져 가고 있어 유명 관광지는 실컷 사람 구경을 해야 할 참이다. 수도권 인근에서 당일 걷기 여행코스를 추천하자면 인천 강화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 특히 올 들어 비무장지대(DMZ) 평화누리길이 아직 개방 전이라서 호국의 달 6월, 강화도는 그 대안지로도 괜찮은 곳이다. 경기 김포와 좁다란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섬을 이루는 강화도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볼만한 유적지가 곳곳에 있어 '역사기행'의 적지가 된다. 고려시대 삼별초가 항쟁을 벌인 갑곶부터 병인·신미양요 등 외세와 항전을 펼친 광성보~초지진에 이르기까지 염하를 따라 이어진 15km '돈대길' 기행은 역사유적 답사를 겸한 걷기 코스로 그만이다.

우리 역사 속의 강화도는 '항쟁의 땅'이다. 고려 때는 몽고, 조선 말기에는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 열강의 단골 침탈지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화도가 개경과 한양의 길목에 놓인 전략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외세가 강화도를 공격해 올 때는 대체로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좁은 물길인 염하(鹽河)를 통했다. 물살이 거센 염하 주변 방어진지를 점령하는 게 순서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강화도는 섬 전체가 요새화 됐다. 그 중 섬 동쪽의 염하 해안에 갑곶돈대, 광성보, 용두돈대, 초지진 등 역사의 현장이 모두 자리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이즈음에는 이들 염하길 따라 이어진 역사유적이 주요 나들이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맨 북쪽의 갑곶에서 남쪽 초지진 까지는 강화나들길 2코스, '호국 돈대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 걷길로 통한다. '염하길'로도 통하는 이 길을 바닷가 제방을 따라 이어지는 갈대밭이며 갯벌, 야생화 등을 감상하면서 쉬엄쉬엄 걷자면 반나절이 족히 걸린다. 길은 험하거나 가파르지 않다. 편평한 길이 줄곧 이어진다. 여름 땀벌이 부담스럽다면 제방 안쪽으로 난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며 유적지를 탐방할 수도 있다.



1 광성보는 강화도 호국돈대길 중에서도 가장 여유로운 풍광을 품고 있다. 용두돈대-손돌목 등대로 향하는 숲속길은 수목원이 부럽지 않다. 2 갑곶돈대

염하 따라 펼쳐진 외세 침략 맞선 항쟁지

갑곶돈대~광성보

염하 해안 길 걷기 기행의 시작을 갑곶돈대(사적 제306호)로 삼는 게 좋다. 강화대교 인근의 갑곶은 고려 삼별초의 항쟁지로 유명하다. 몽고 침략군에 대항해 강화로 천도한 고려 무신정권은 강화성과 갑곶을 중심으로 39년 동안 대몽항쟁을 벌였다. 염하의 거친 물살에 수전(水戰) 경험이 없던 몽고군은 40여년 가까이 강화도에 발을 들여 놓지 못했다.

병자호란(1636) 때에도 강화도의 갑곶은 청나라의 침략에 대항하는 근거지였다. 이후 조선 말기 프랑스군이 일으킨 병인양요(1866년) 또한 갑곶 상륙을 시작으로 비롯됐다. 갑곶돈대(墩臺)에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포격을 가하던 대포와 진지들이 잘 정비돼 있다. 요새 마당에 서면 김포를 오가는 강화대교와 서해로 향하는 빠른 물살 그리고 갯벌이 한 눈에 들어온다.

갑곶돈대의 또 다른 명물은 400년 수령의 탱자나무(천연기념물 제78호)다. 높이 4m, 둘레가 1m에 이르는 거목이다. 탱





자나무는 특유의 역세고 날카로운 가시로 성벽 밑에 심어서 철조망과 같은 구실을 했다. 외세 침탈에 대비한 방어 수단이었던 셈이다.

갑곶돈대 남쪽 해안에는 야트막한 토성이 있다.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이다. 외성은 고려의 대몽항쟁 때 초지진까지 축조됐다. 지금은 보행전용 길이 됐다. 갑곶에서 초지진 사이의 염하 해안에는 들꽃과 들풀 그리고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어우러져 목가적 풍광을 자아낸다. 갑곶 인근 강화역사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세까지 강화도의 역사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갑곶돈대에서 광성보로 향하는 길은 다양한 유적이 펼쳐진다. 더러미 선착장을 지나 용진진, 용당돈대, 화도돈대, 오두돈대 등이 줄지어 이어진다. 특히 더러미 선착장 인근에는 강화의 별미 거리 중 하나인 장어마을 음식촌이 형성돼 있다.

신미양요 최대 격전지로 가장 큰 군사유적

광성보~덕진진

강화도의 돈대길 기행 중 가장 운치 있는 곳이다. 특히 우거진 솔숲길이 수목원처럼 이어져 여유로움이 물씬 풍긴다. 때문에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광성보(사적 제227호)는 강화도 동쪽 해안의 군사유적 중 가장 큰 곳이자 미국이 강화도에서 일으킨 신미양요(1871) 당

시 최대 격전지이다. 세 개의 돈대가 있으며 다리미 모양의 아담한 광성보돈대, 염하 쪽으로 용의 머리처럼 길게 뻗어나간 용두돈대, 광성보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자리한 손돌목돈대 등이 그것이다. 그중 용두돈대는 강화도의 돈대들 가운데 가장 풍광이 멋진 곳이다.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거칠게 흐르는 손돌목 물살과 돈대를 둘러싼 기암괴석이 최고의 요새였음을 실감케 한다.

광성보돈대에서 용두돈대로 가는 길가에는 신미양요 당시 순국한 어재연 장군과, 어재수 형제를 기리는 쌍충비와 무명용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순국무명용사비가 세워져 있다. 그 아래의 양지 녘에는 무명용사 51명을 7기의 분묘에 합장한 '신미순의 충도' 자리하고 있다. 광성보 입구에서 손돌목돈대를 거쳐 용두돈대까지 광성보 일원을 한 바퀴 둘러 보는데 1시간 남짓이 걸린다. 광성보에서 덕진진으로 향하는 길은 바닷가 제방이다. 갯벌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싱그러운 해풍을 맞으며 걷기에 좋은 코스가 이어진다.

강화도조약 불러 온 윤요호사건의 배경지

덕진진~초지진

덕진진(사적 제226호)은 고려시대에 강화해협을 지키던 외성의 요충지이자,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를 보호하기 위한 12진

● 여행 메모

가는 길

승용차

서울시청~올림픽대로~김포한강로~김포대로~강화대교~강화역사 박물관~갑곶돈대(51km, 1시간 2분소요)

*DMZ평화누리길 2022년은 아직 열지 않았다. 강화코스를 포함해 올 여름 문을 열 예정이다.



시래기밥



밴댕이회

뭘 먹을까?

•**시래기밥** 강화에서 맛볼 수 있는 웰빙 별미거리다. 겨우내 말린 시래기를 불려 잘게 썬 다음 밥을 지을 때 넣고 함께 짓는다. 마치 곤드레 밥이나, 콩나물밥, 무밥 짓듯 하면 된다. 밥맛은 기대이상이다. 양념간장에 비벼 먹어 장맛도 좋아야 하겠지만 입 안 가득 추억의 향이 느껴진다. 말린 시래기 특유의 톡톡한 냄새가 이 음식의 미각 포인트. 밥을 지은 뒤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밥을 퍼내 은근하게 고소한 맛이 배어 있다. 길상면 소재 대선정에서 맛볼 수 있다. 8000원

•**밴댕이** 강화에는 모내기철 맛이 가장 좋다는 밴댕이가 제철이다. 밴댕이를 회, 구이, 무침 등으로 맛볼 수 있으며, 이를 한꺼번에 정식으로도 차려준다. 하지만 서해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생선이다. 강화풍물시장, 선수포구 등 강화도 일원에서 맛볼 수 있다. 밴댕이회-구이(각 2만 3000원, 2인 기준), 밴댕이정식 3만 원(2인 기준)



3 남장포대 4 초지진

덕진진을 빠져나와 호국돈대길의 마지막 코스 초지진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좁다란 해안 산길이 이어지고 이내 갯벌이 펼쳐진다. 햇살이 잘 드는 갯골에는 칠게, 밤게, 짬뽕어 가족이 나와 오뉴월 햇살에 망중환을 즐기는 모습이 여윌롭다. 이를 낚을 놓고 지켜보다가 갯벌 생태계 관찰이 가히 '시간 도둑'임을 실감하고 말았다.

초지진은 강화도의 동쪽 염하 해안 중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마지막 역사기행지다. 초지대교가 바라다 보이는 초지진 앞 물살은 유독 거친데 과거 선조들의 항쟁의 시간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초지진은 신미·병인양요에 이어 강화도조약을 불러 온 일본 군함 운요호사건의 배경지이다. 일본군의 강화해역 무단 침입에 초지진의 조선군이 포격을 가했고 이에 운요호에서 응사해 초지진과 포대가 완전히 파괴됐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체결했다.

초지진 돈대의 벽에는 아직도 그 치열했던 전투의 상흔이 남아 있다. 초지진에는 정2품송을 닮은 멋스러운 노송이 성곽 주변에 서 있고 당시의 포대와 격전에 초토화가 된 초지진의 사진물도 전시해뒀다. ◎

보 중 하나다. 조선 현종 7년(1666)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해군 주둔지(수영)에 속해 있던 덕진진을 덕포로 옮겼으며 숙종 5년(1679)에 용두돈대와 덕진돈대를 거느리고 덕진포대와 남장포대를 관할함으로써 강화해협에서 가장 강력한 포대로 거듭났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양헌수의 군대가 덕진진을 거쳐 정족산성으로 들어가 프랑스 군대를 격파했고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국 함대와 가장 치열한 포격전을 벌인 곳이다. 그러나 초지진에 상륙한 미국군대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말았다. 1976년 성곽과 돈대를 다시 고쳐 세웠다.

덕진진에는 문루인 공조루(拱潮樓), 남장포대, 덕진돈대 그리고 대원군이 세운 해문방수비(海門防守碑)가 있다. 해문방수비에는 '바다의 문을 막고 지켜서 다른 나라의 배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글귀가 새겨 있다.



●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관광경영학 박사)

신문사에서 20년 동안 관광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전 세계 50여 개국, 전국 각지의 문화관광자원 현장과 정책을 취재했다. 지금은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대한민국관광 명품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식량 외교

무엇보다 식량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정치·외교적 대응이 필수다. 식량 외교에 적극 나서는 등 위기에 선제 대응할 범정부 지휘본부(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껏 고조된 식량 위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세계 식량 가격이 두 달 연속 소폭 하락한 것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7.4로 4월보다 0.6% 하락했다. FAO는 24개 품목의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달 발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이 지수는 199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인 159.7을 기록했다가 4월 158.5로 소폭 하락한 데 이어 5월에도 내렸다.

하지만 곡물과 육류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다. 곡물 지수는 4월보다 2.2% 상승했다. 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작황 부진에 더해 인도의 수출제한 조치 여파로 가격 상승세를 유지했다. 육류 지수도 0.5% 상승했다. 우크라이나의 공급망 장애, 유럽과 중동지역의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

식량 위기 부추기는 곡물 수출 봉쇄

이번 전쟁이 식량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흑색토는 비옥하기로 유명하다. 우크라이나는 경작지 비중이 57%(2019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다.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도 경작지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8%, 옥수수는 13%, 해바라기유는 3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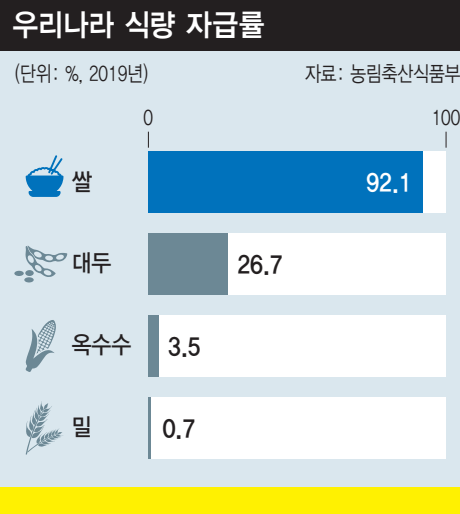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농토를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량 수출길도 파괴했다.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봉쇄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전쟁 전에 수확해둔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적들에게 식량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 봉쇄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 저소득 국가들의 식량난을 부추기는 ‘범죄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곡물을 운반하

는 선박의 운항을 막지 않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항구를 이용한 수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식량 위기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이를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일단 숨통을 틔우게 됐다.

푸틴은 “곡물 수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관리하는 항구를 거치거나 베르단스크와 마리우폴을 통하거나 다뉴브강과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를 거쳐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국제무역은 상품과 원자재의 자유로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이 기대를 무너뜨리고 국제 식량과 원자재,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국내 곡물 소비량 70% 이상 수입 의존

위기는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먼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식량 가격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1000만 명이 빈곤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세계경제에 해가 될 수 있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10월 ‘곡물 수급안정사업 정책분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곡물을 일곱 번째로 많이 수입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전체 수요량 2104만 톤 가운데 1558만 톤을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나라 곡물 소비량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도 오르는 현상) 당시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농장 매입(해외 직농)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은 데다 국제 곡물 시장이 안정되면서 얼마 안 가 흐지부지 됐다.

아직은 애그플레이션 때에 견줘 가격과 수급이 안정적이다. 세계 식량 재고율이 소비량 대비 30% 수준인데 이 정도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된다.

무엇보다 식량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정치·외교적 대응이 필수다. 식량 외교에 적극 나서 등 위기에 선제 대응할 범정부 지휘본부(컨트론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체 원산지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 이준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별이 된 송해 참 애쓰셨습니다

6월 8일 타계한 송해는 많은 연예인들의 전범(典範)이었다. 그는 아흔다섯 살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현역이었던 송해를 누구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그는 국내 최고령 MC이자 전 세계 TV음악 쇼의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다. ‘길어야 2~3년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송해는 KBS1 <전국노래자랑>과 34년의 인연을 이어왔다. 1988년 처음 시작해 1994년 5월 무렵 5개월 동안 하차했던 것을 빼면 매주 일요일마다 시청자를 찾았다.

“딩동 덩동덩” 소리와 함께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는 <전국노래자랑>에서 송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한동안 허전할 것 같다. 송해는 전 국민의 오빠이자 형이었고 친근한 국민 MC였다. 송해는 어떻게 장수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까?

전 국민의 오빠, 형이자 친근한 국민 MC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송해는 성공한 삶의 상징이었다. 매주 전국을 누비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가는 곳마다 산해진미를 맛보고, 웃음이 끊이

지 않는 무대에 서서 MC를 보는 특권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다. 언젠가 송해에게 장수 MC의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저는 공개방송을 하러 가는 지역에 먼저 가서 동네 사람들과 만나요. 소주 한잔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에 갑니다. 동네 할아버지부터 꼬마들까지 모두 편하게 인사를 해요. 별거없고 탕에 들어앉아서 동네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는 작가가 써줄 수 없는 살아 있는 정보였다. 송해는 무대에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했다. 이런 노력이 그를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진행자로 만들었다. 무대에 올라온 출연자들도 그를 오빠이자 형, 할아버지로 생각했다. 어떤 말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진행자이기 때문에 출연자들은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한 무대를 펼쳐 보였다. 1955년 유랑극단인 창공악극단에서 시작해 무대경력을 쌓아온 송해는 즉흥 발언(애드리브)의 황제다. 별다른 대본 없이 웃음을 제조해내고 재빠르게 출연자의 특성을 파악해 그들이 가진 재능을 끌어낸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다.

그가 장수 MC가 될 수 있었던 또다른 비결은 건강이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살아 생전 그는 승용차를 타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소주 한 병을 비우는 애



KBS1 <전국노래자랑> MC 송해 | KBS



KBS1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가수 임영웅 | KBS



KBS1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국악인 송소희 | KBS



● 오광수 대중문화평론가(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문화 분야에서 기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시집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건 미친 짓이야>, 에세이집 <남만광대 전성시대> 등이 있다. 현재는 문화 현장에서 일하면서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이지만 하루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 또 매일 사우나를 즐긴 것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로 꼽는다. 또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낙천적 성격도 건강의 원동력이었다.

‘땡’과 ‘딩동댕’으로 출연자의 운명이 엇갈리는 <전국노래자랑>은 정색을 하고 노래 잘하는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르다. 누구나 편안하게 출연해 떨어져도 웃으면서 무대를 내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것은 전적으로 송해의 노련한 진행 덕분이다. 순발력이 뛰어난 코미디언 출신 진행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전국노래자랑>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할을 안 한 건 아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박상철, 장윤정, 김혜연, 송가인, 송소희 등은 물론이고 임영웅, 정동원, 이찬원, 영탁 등이 모두 <전국노래자랑> 출신이다. 심지어 김재욱, 조영규, 홍석천 등도 이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에 진출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연예계에서 송해의 일이라면

6월 8일 타계한 송해는 전 국민의 오빠이자 형이었고 친근한 국민 MC였다. 송해는 어떻게 장수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까?

모든 후배가 발 벗고 나선다. 이 또한 ‘마당발’ 송해의 장수 비결 중 하나였다.

“<전국노래자랑>은 화합의 장이죠”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송해는 해주예술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피란길에 가족과 헤어져 혼자서 남한에 왔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너그러움을 갖게 했다. 누구든 포용하는 무게감을 갖고 있지만 결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피에로처럼 슬픔을 감춰왔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도 무대에서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에 사랑하는 누이동생을 두고도 못 만나는 이산가족이고, 정치권에서도 탐내던 유명인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전국노래자랑> 무대를 지켜왔다. 송해는 한 인터뷰에서 <전국노래자랑>이 가진 장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전국노래자랑>은 화합의 장이죠. 지역갈등, 고부갈등, 직업 간 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 성별과 세대 간 갈등이 다 해소돼요. 서로 손뼉 치면서 격려하지요.”

좌와 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도 않으며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를 갈라치지도 않았다. <전국노래자랑>이 곧 송해였다. 한동안 그의 부재가 우리를 허전하게 할 것이다.

“참 애쓰셨습니다. 송해 오빠. 부디 그곳에서도 행복하세요.” ●

육월일까, 유월일까?

활음조 현상

열두 달로 이뤄진 1년, 사람들은 각 달에 숫자를 붙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혹은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십일월 십이월'이라고 하는데 요. 그런데 각 달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달과 달리 숫자를 있는 그대로 쓰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6월과 10월인데요. 왜 '육월' '십월'이라고 하지 않고 '유월' '시월'이라고 발음할까요?

'6월' 어떻게 읽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발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육월[유꺾]' '유월' 중 어떤 게 더 말하기 편한가요? 유월이 더 수월하게 읽힙니다. 듣기에도 한결 더 편하고요. 이렇게 인접한 두 소리를 연이어 발음하기 어려울 때 어떤 소리를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소리로 바꿔서 말하기 쉽게 하는 것을 '활음조(滑音調)'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십월[시꺾]' 역시 발음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받침 'ㅂ'을 빼고 시월로 읽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활음조 현상으로 본래 음과 다르게 발음되는 단어로는 오뉴월(오륙월) 구시월(구십월) 초파일(초팔일) 소나무(솔나무) 바느질(바늘질) 등이 있습니다.

한글맞춤법 제6장 52항에 따르면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고 규정했는데요. 이처럼 한자의 본래 음이 변해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는 발음이 있다면 그 소리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과 그 말을 적은 글이 서로 다르지 않게 하려고 '언문일치'한 것인데요. 따라서 육월, 십월, 오륙월, 구십월, 초팔일, 솔나무, 바늘질과 같이 쓰는 건 맞춤법에 어긋납니다. 반드시 유월, 시월, 오뉴월, 구시월, 초파일, 소나무, 바느질이라고 말하고 써야 합니다.

'사흘'은 왜 3일인가?

우리말에는 '날'을 가리키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뿐만 아니라 그저께, 어저께, 오늘, 모레, 글피 등 한자어가 아닌 순우리말로 된 단어들이 넘쳐는데요. 그래서인지 순우리말인 이 단어들을 한자어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흘의 '사'가 한자어 '네 사(四)'라고 생각해 '4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을 말합니다.

'사흘'이 3일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선 먼저 이 단어가 한자어가 아닌 순우리말이라는 점을 기

게티이미지뱅크



활음조 현상 적용 예시

단어	→	적용
육월		유월
십월		시월
오륙월		오뉴월
구십월		구시월
초팔일		초파일
솔나무		소나무
바늘질		바느질

육월, 십월, 오륙월, 구십월, 초팔일, 솔나무, 바늘질과 같이
쓰는 건 맞춤법에 어긋납니다. 반드시 유월, 시월, 오뉴월, 구시월, 초파일,
소나무, 바느질이라고 말하고 써야 합니다.

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순우리말에서 ‘서’는 세 번째를 가리키는 말이고 ‘홀’은 ‘날’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날’을 의미하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 먼저 ‘서’와 ‘홀’이 합해져 ‘서홀’이 됐고 이후 ‘서’에서 모음 변화가 일어나 ‘사’로 형태가 변해 지금의 ‘사홀’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일’을 나타내는 ‘나홀’ 역시 ‘네 번째’를 가리키는 ‘너’라는 우리말과 ‘홀’이 합쳐져 ‘너홀’로 쓰이다 후에 ‘나홀’이 됐습니다.

‘3~4일’처럼 두 개 날짜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순우리말로 ‘사나홀’이라고 읽는데요, ‘사나홀’은 다른 말로 ‘사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밖에도 ‘나달(사오일)’ ‘대엿새(오륙일)’ ‘예니레(육칠일)’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6월, 한 해의 절반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나 지나갔군.”

“아직 한 해의 절반이나 남았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반이 지났다고 불평하기보다 나머지 반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건 어떨까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삶이 바뀐다고 하죠. 불평 대신 감사와 희망으로 관점을 바꾼다면 분명 ‘삶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

백미현 기자

1



1 박종갑, '생명의 숲-경계에 서다', 한지에 수묵, 227×976cm, 2021 2 박종갑, '장막-인류의 길', 선지에 수묵, 138×60cm, 2021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에서 미래를 찾다

이런 적은 거의 없었다.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완판!”, “매진”, “씩쓸이”, “○○이 ‘찜’했다”, “호황”, “돈이 몰린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아트페어를 두고 언론, 특히 경제 일간지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하나 같이 자극적이다. 투기를 부추기는 표현이다.

요즘 미술시장 열기는 그야말로 과열. 코로나19로 해외 여행 길도 막히고 마땅히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한순간 폭발한 양상이다. 일부 부유층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다.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도 이 용광로에 뛰어들었다. NFT(대체 불가 토큰)에 대한 열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마치 연예인에 열광하는 팬덤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평가는 엇갈린다. 누군가는 기회라 하고 누군가는 거품이라 진단한다. 나는 후자 쪽이다. 미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이 다양해지는 경향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는 속도와 방향. 내가 보기엔 너무 빠르다.

먹과 몸으로 그린 그림

세상살이에 정답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그림에 대한 ‘호불호’는 지극히 주관적. 양은 냄비에 끓인 즉석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고아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설렁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앞서 거론한 아트페어에서 팔리는 그림이 양은 냄비 같다면 동양화가 박종갑의 그림은 뚝배기 같다.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인 박종갑은 ‘은근(慇懃)’한 사람이다. 국어사전에 나온 것처럼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하며 정취가 깊고 그윽하며 함부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다.” 전복 전주가 고향인 작가는 몇 년 전 완주군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 제일 안쪽 야트막한 산자락에 있는 작업실은 한때 절집이었다. 불상을 모시던 목조건물과 마당이 딸려 있다. 개, 염소, 고양이, 닭이 함께 산다. 학교에 출근하는 날을 제외하곤 줄곧 이곳에서 지낸다. 올해 초 겸재정선미술관 개인전 출품작이 이 작업실에서 나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서울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열렸다. 이때 작품은 전남 해남에 있는 작은 섬 임하도에서 그린 것들이었다. 전시 제목은 ‘남도·바람·돌’. 제목처럼 섬에서 상주하며 느꼈던 바다, 바람, 돌, 파도 등에서 받은 감흥을 필획의 흔적으로 보여주는 모양새였다. 한벽원미술관 전시장 전체를 에둘러 전시했다.



작품 제작 과정이 담긴 동영상도 상영했다. 자연과 교감하면서 그 기운에 도취된 울림을 온몸으로 표현한 장엄한 퍼포먼스였다. 눈발 날리는 야외에서 커다란 붓으로 춤추듯 그리는 작가의 몸짓은 보는 사람마저 흥분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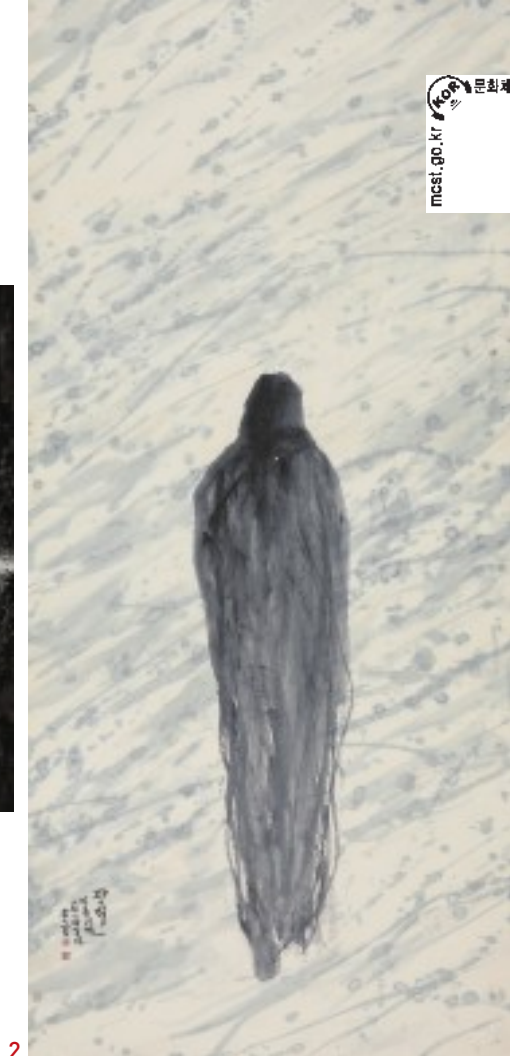
이후 5년 만에 열린 전시가 겸재정선미술관 개인전이였다. 출품작은 한층 안정되고 차분해진 느낌이다. 전시 제목을 '회류(回流)'라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갇힌 인간이 처한 환경에 대해 돌아보자는 의미다. 인류의 나아갈 미래를 성찰하자는 제안이다.

존재의 본질과 자연에 대한 탐구

박종갑은 인간 존재의 본질 그리고 자연에 대한 내밀한 탐구와 사유를 놓지 않고 있다. 그는 말한다.

“정신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오늘날이다. 과시적 소비문화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적 근원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보이지 않음을 보고 들리지 않음을 듣고자 한다. 정중동(靜中動), 무위행(無爲行)의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사유의 장을 열어보려 한다.”

이 말은 곧 ‘평온한 가운데 기이함을 추구하고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것을 추구한다(平中見奇 靜中見動)’는 작업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작품 ‘생명의 숲-경계에 서다’ 연작이 좋은 예다. 옆으로 길게 펼쳐진 화면은 대자연의 축소판이다. 비록 사람 형상은



2

보이지 않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바로 인간-몸짓의 존재이며 호흡의 흔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자 함의 증거인 셈이다.

박종갑은 오직 검은색 먹만 사용한다. 먹의 농담(濃淡)으로 밝음과 어둠의 색채를 구현한 솜씨가 놀랍다. 그는 지필묵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해가 누구보다 깊다. 직접 만든 다양한 모필(毛筆)을 사용한다. 심지어 먹도 직접 만든다. 동양화에선 특히 먹이 중요한데 요즘은 질 좋은 먹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먹의 맥이 끊기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통에서 미래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박종갑의 그림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창작에서 전향해 몇 년간 큐레이터로 일했고, 미술 전문지 <월간미술> 기자로 입사해 편집장까지 맡아 18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저널리스트’로 불리는 것보다 여전히 아티스트에 가까운 ‘미술인’으로 불리기 원한다.

공감
리뷰



656호

저는 축구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호의 손흥민 특점왕 기사는 특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유럽 무대에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무려 23골로 득점왕에 오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공감했던 부분은 23골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개인의 기록 욕심보다 팀을 생각하며 도움, 패스 연결 등을 더 중시하고 골 전체를 필드골로 채웠다는 기사를 읽으며 제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한계를 돌파하는 손흥민 선수와 그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워나갈 새로운 세대들을 응원합니다!

양희정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657호

아직 백일이 안 된 막내아들과 네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하루하루 마음 편히 여유를 느껴본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홍화정 작가의 만화 '잠시 눈을 감으면'을 읽고 여유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 잠시 눈을 감고 커피 한 모금과 음악이 주는 여유를 느끼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아이들을 지금보다 더 아끼며 사랑만 듬뿍 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정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인 두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홍소진 서울 강서구 등촌로

사진
공감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 뒤에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더욱 돋보이는 하루네요. 모두의 마음속에도 파란 하늘빛이 가득 차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향순 경남 거제시 양정5길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content.v.kakao.com/3094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blog.naver.com/mcst_pr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2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 기프트콘(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뉴스레터 새단장 기념 구독 & 축하 이벤트

기간: 2022년 6월 15일(수)~26일(일)



너무
나만 알기 아까운 '요즘 정책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구독 신청 또는 기대평을 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양한 정보 구성과 눈에 띄는 배치, 모바일 사용자를 고려해
폰트를 키워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 | |
|--|--|
| ☒ 주간 주요 정책뉴스 | ☒ [알면 도움돼요] 생활정보 |
| ☒ [농치면 아까워요] 주요 정책정보 | ☒ 많이 본 뉴스 톨5 |
| ☒ 정책퀴즈 | ☒ [궁금해! 정책용어] 최신 정책용어 설명 |
|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배너 | |

오~ 디자인도 구성도
더 좋아졌네!

- 참여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이벤트 팝업에서 참여 가능
- 참여기간 2022년 6월 15일(수)~6월 26일(일)
- 결과발표 2022년 6월 30일(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R코드로 이벤트 참여!



모바일 주유권



치킨+콜라 세트



아이스크림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고향 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처